

# 韓 國 燈 火 史

〈最終回〉

## A Light Lamp History of Korea

崔 漢 燮

### 第 6 章 電燈事業의 起源과 變遷

#### 韓美電氣會社의 設立

前述한 바와 같이 漢城電氣會社의 電車事業은 意外로 人氣를 끌어서 1899년중에 電鐵線路를 鍾路에서 南大門까지 연장하고 1900년에는 다시 南大門에서 龍山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1월에 起工, 다음해인 1901년 1월에 준공했다.

또 同年 4月 客車 6台, 貨車 2台를 新造하고 東大門 發電所에는 새로이 125kW의 直流 및 交流兩用의 發電機를 증설하여 總出力 200kW를 확보, 電燈經營의 준비를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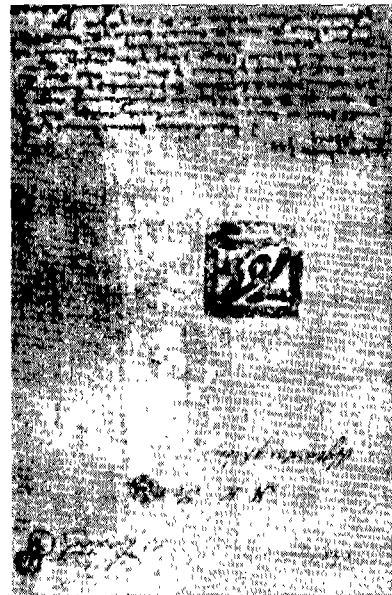
그리고 다시 1901年 7월에는 南大門에서 義州路를 거쳐 西大門에 連絡하는 電車線路를 新設하였으나 収支가 맞지 않아서 2·3년뒤에 철폐했다.

電燈도 진고개의 日本人 商街에 1901年 6월에 點燈한 以來 需要가 점차로 늘어나서 東大門發電所의 出力만으로는 供給力이 부족하여 1903年 龍山에 第2發電所(225kW)를 新設함과 동시에 南大門에 變電所를 설치했다.

이처럼 해마다 事業을 擴大함에 따라서 漢城電氣會社는 資金難을 조려하게 되어 美國 信託會社로부터 低利의 資金을 借入키로 결정, 韓國皇帝의 諒解를 얻어 美國 코네티카트주세이브르크市的 엔파이어트라스트 會社와 교섭을 개시했다.

漢城電氣會社는 일체의 財産을 擔保로 프라스트會社에 제공하고 100萬달러限度の 借入을 계약하고 이 계약 체결을 위해서 漢城電氣會社를 코네티카트주세이브르크市에 移轉했다.

그리고 1904年 7월에는 商號를 韓美電氣會社(American Korean Electric Co)로 개칭하고 前記 信託 會社에 의하여 10個年拂込 年利 6分의 金貨30萬달러(證券



〈그림-91〉 高宗皇帝와 콜브란 사이에 체결된 韓美電氣會社設立에 관한 계약서 原文

額而價 1,000달러)의 社債를 발행하여 資金을 調達했다.

이 결과 法律上으로는 漢城電氣會社는 소멸하고「허랄 알 밀스」가 社長에 취임하여 會社는 코네티카트州法의 支配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韓國皇室의 出資는 단순한 투자에 그치고 말았으나 다만 營業權의 관계상 1904年 2월 29일字로 韓國皇帝와 再契約하였는데 그 原文은 없고 日本翻譯文이 지금 傳하여지고 있다.

#### 韓美電氣會社의 賣却과 解散

韓美電氣會社는 美貨 30萬달러의 起債로 다시 사업확

장과 運營改善에 안간힘을 다 하였다.

그러나 韓國에 대한 日帝의 政治的 침략과 經濟的 수탈은 일찌기 日帝가 露日戰爭을 일으키고 韓日議定書を 강제로 체결한 1904年에서 부터 더욱 노골화되어 갔다.

日帝는 韓日議定書와 더불어 「對韓施政綱領」·「對韓施政細目」등의 韓國 수탈책을 마련하고 軍事的인 占據 상태를 이용하여 南西沿海의 漁業, 鐵道の 부설, 通信 기관의 관리, 森林의 벌채, 鎭山의 채굴등 여러가지 광범한 利權을 탈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日帝에게 있어서 首都 漢城에서의 電氣, 電卓, 電話등의 利權을 獨占하고 있는 外國人 經營의 韓美電氣會社의 存在는 그들의 所謂「對韓政策」上 一大障礙物 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日帝는 이 韓美電氣會社에 대하여 政治 및 經濟的으로 갖은 압박을 加함으로써 韓美電氣會社의 앞날에는 經營上 여러가지 難關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의 日人들의 弄奸은 위에 이 會社를 買取한 韓日瓦斯會社의 「韓美電氣會社買取趣旨書」에서 그들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露日戰爭以來 韓國에 있어서 우리들 官民의 經營은 날로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京城 및 그 부근에 있어서의 現저한 發展은 실로 놀라운 바 있다. 즉 教育, 警察, 衛生, 道路등의 設備는 점차 그 面目을 一新하였고 金融, 商業, 運輸등의 機關 또한 從來에 比하여 크게 改革되었다. 더우기 이들 文明施設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本國人的 經營이 아닌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림-92〉 서울 鍾路에 있었던 韓美電氣의 社屋

그러나 唯獨 市內의 電車 및 電燈은 약 10년전 美國人 콜브란등의 創始한바가 되어 京城에 있어서의 本國勢力의 展開上 하나의 障礙가 되어 온 感이 있다.

여기에 있어서 數年以來 이것 (韓美電氣會社) 을 本國人的 掌中에 넣기 위하여 個人 또는 團體의 힘으로써 또는 官衙와 官邊의 聲援을 얻어 買取策을 講究하기를 3·4회에 그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奏效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컨대 우리들이 누차에 걸쳐 이의 實行을 企圖한 所以는 非但 經濟的인 意味에서 뿐만아니라 政治的인 理由가 伏在하기 때문일 것이다 ……….』

당시의 경제적인 수탈상황과 韓美電氣會社에 대한 그들의 野慾을 남김없이 스스로 드러낸 趣旨書라고 하겠다.

한편 日帝는 서울에서의 韓美電氣會社의 電燈事業과 맞서 가스事業을 經營키로 하고 1908년 9월 韓日瓦斯株式會社를 설립하고 다음해에 가스供給施設에 着手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韓美電氣會社는 앞으로의 運營上 여러가지 어려움을 豫想하고 같은해 4월에 韓美電氣會社의 賣却을 결심하고 韓日瓦斯株式會社와 교섭을 개시하여 콜브란은 賣却價格을 120萬圓으로 하고 支拂方法은 第1次年度에 60萬圓, 第2次年度에 60萬圓씩 分割支拂하고 계약일로부터 完拂日까지 未拂金에 대하여 年利 6分를 지불하며 이밖에 美貨社債 50萬圓 (25萬달러)을 그대로 借入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韓日瓦斯는 現地調査 결과 營業財産의 評價額은 87萬圓으로써 殘餘金은 결국 權利金이 되므로 너무 비싸다는 結論을 내렸으나 그들의 앞날의 野心和 統監伊藤의 贊同등으로 1909년 6월 24일 日本 요코하마 인터내셔널銀行에서 美貨社債 포함 총액 170萬圓에 貸借계약서 를 調印하여 韓美電氣會社의 일체의 權利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韓美電氣會社는 이미 賣却되었으나 法律上 解散手續을 완료할 때 까지는 여전히 남게 되므로 韓日瓦斯는 1910年 美貨社債 25萬달러를 前記 인터내셔널銀行을 經유 上항 1911년 3월 6일 美國法律에 따라 東京 美國大使館에 韓美電氣會社의 임원이 出頭, 大使에게 會社의 解散을 宣誓하고 서명날인하여 査證을 얻어 美國에 송부 1911年 5月24日 코네티카트川 書記官의 手理에 의하여 韓美電氣會社는 法律上 완전히 解散되었다.

### 韓日瓦斯와 가스燈 普及

石炭가스를 照明으로 이용한 것은 1812年 英國 런던에 가스라이트 앤드 코크會社가 설립되고 다시 1816年 美國 볼티모아에서 각각 設立된 이후 歐美各國에 보급되었고 東洋에서는 1862年에 上海, 香港, 그리고 1877



〈그림-93〉 韓日瓦斯의 가스탱크

년에는 日本 요코하마에서 각각 창설 보급되었다.

당시의 최초의 가스燈은 裸火로서 가스를 火口에서引出하여 그대로 點火하는등 지금의 炊事用的의 瓦斯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상태는 光度에 있어서 오히려 石油램프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마침 그때부터 電燈이 보급됨으로써 가스燈은 곧 자취를 감추게 될 운명에 있었다.

그러나 웰즈 박사가 가스탄소를 발명하여 光度가 강하고 빛깔도 白色이 되어 당시의 電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편리하여 순식간에 크게 보급되어 街路照明과 住宅用照明으로 그후 오대도록 이용되어 왔다.

이 가스燈이 우리나라에 보급된 것은 韓日瓦斯株式會社의 창립에서 비롯된다.

1905年 7月 日本人 伊藤寬治는 露日戰爭후의 好況을 타고 韓國進出을 꿈꾸고 來韓, 당시 일반적으로 가스가 電燈보다 有利한 경향에다가 冬期가 긴 서울에서는 暖房을 겸한 가스燈이 보다 有利한 것이라는 판단아래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미 韓國人 權東壽가 既得權을 얻고 있어 여러차례의 교섭 끝에 가스事業利權을 매수했다.

伊藤는 日本財閥 東京瓦斯社長 滿澤榮一등과 협의의 1907年 3월 5일자로 京城理事廳을 경유 統監府에 가스事業許可申請書를 제출 같은해 6월 27일에 許可의 指令을 받았다.

이 會社는 資本金을 300萬圓으로 결정하고 拂込金 75

萬圓으로 제 1기 계획을 추진코자 같은해 9월 23일 부터 東京瓦斯株式會社內에 韓日瓦斯株式會社創立事務所를 설치, 1908年 5月 서울龍山에 있는 鐵道管理局과 駐韓軍司令部관하의 土地 1만 4천坪을 대여받아 공장건설등의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1908年 9월 30일 東京에서 創立總會를 갖고 韓日瓦斯株式會社를 설립하였는데 이 會社는 1907年 봄부터 財界가 不況에 빠져 發起人 선정과 株式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韓日瓦斯는 그동안 가스제조에 필요한 시설과 영업시설의 건설을 1909年 10月 31日에 준공하고 1909年 11월 3日 日本人 南街동에 點火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가스燈 點火의 시초이다.

가스의 초기공급실적을 보면 영업개시후 1910年 1월 말 현재 가스공급량 87,953立方미터, 코크스제조량 38.8톤, 콘탈產出量 42.9石, 引用家口 773호, 燈火口數 1,982孔口, 熱用口數 253孔口로 가스燈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한편 料金は 1,000立方피이드 3圓, 普通램프 1개 1개월에 1圓内外로 低廉하였는데 이 料金에는 당시의 韓美電氣會社의 電燈과 경쟁하기 위한 政策的인 考慮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경쟁상대인 韓美電氣의 電燈料는 1個月 16燭光 2圓50錢, 10燭光 1圓16錢으로 높았을 뿐만아니라 申請時에 架設費가 비쌌으므로 韓日瓦斯의 경쟁이 매우 不利하게 되었다.

이때문에 需要者는 韓日瓦斯에 몰려들어 가스燈을 가장 많이 이용한 1915年 1월 말 현재에는 燈火口數가 16,509孔口에 이르렀고 그후부터는 해마다 電燈에 밀려나가 1941년 말에는 306孔口에 불과한 반면에 熱用은 42,929孔口로 늘어났다(熱用의 最盛期를 1939年 1월 말의 44,918孔口임)

한편 韓日瓦斯는 1909年 6월에 韓美電氣를 매수하여 電氣事業과 電氣鐵道를 兼營하게 됨에 따라서 商號를 韓日瓦斯電氣株式會社로 바꾸고 1909年 7월 27일 登記變更했다가 1915年 9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商號를 다시 京城電氣株式會社로 바꾸기로 결의하고 동년 9월 16일에 登記를 변경했다.

### 아세틸렌가스燈의 普及

가스燈이라고 하면 보통 石炭가스를 뜻하지만 이밖에도 메탄가스, 아세틸렌가스등이 있다.

아세틸렌가스는 카바이드에 물을 넣어서 만들어 燈用으로 사용하는데 「메탈 마텔」에 의하면 1897년경 그당

시 보급된 아세틸렌가스燈의 見本 3, 4 개를 파리에서 가져와 市中의 허가를 얻어 市中에 보급코자 하였으나漢成電氣會社의 설립으로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아세틸렌燈은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燈火이므로 그 뒤 鍾路의 夜市場과 鑛山등에 보급되어 지금 까지도 일부에서는 이용이 되고 있다.

## 地方都市의 電燈事業

한편 韓日瓦斯에 앞서 1901年 3월에는 釜山에 釜山電氣株式會社가 설립되어 다음해인 1902年 4월에는 영업을 개시했는데 이는 日本人에 의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電氣事業이다.

그리고 平安道の 靈山鑛山의 채굴권을 얻은 美國人은 1905년 이 鑛山에 600kW 自家用 水力發電所를 설치했으며 같은해 6월 역시 日本人이 仁川에 仁川電氣株式會社를 설립, 100kW 直流發電機 2台를 설치 1906년 4월 斷火와 동시에 영업을 개시했다.

1914년 제 1차 世界大戰이 일어나자 戰時 및 戰後의 好景氣와 內燃機關의 발달로 日本人의 國內 電氣事業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日本內의 謀利者들이 다루어 電氣事業을 出願하여 木浦電燈의 경우에는 日本人끼리 4개派가 심한 競願을 벌이는가 하면 日本人 安立某라는 者는 같은 시기에 鎭南浦 大邱, 木浦, 群山등 4個地域에 동시에 出願하기도 했다.

그 결과 前記한 서울과 부산, 인천을 제외하고도 1911년 부터 1920년 사이에 全國에는 24개 都市에 電氣會社가 설립되었고 1921년부터 1931년사이에는 47개 地方小都市에도 電氣事業체가 설립되어 國內 配電時代를 現出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순수한 우리 民族資本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된 것은 오직 開城電氣株式會社(資本金 5萬圓, 1916년 4월 설립, 社長 金正浩)뿐이었다.

이 시기의 發電施設은 가스機關 또는 重油機關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産業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電力이 電燈으로부터 産業의 原動力으로써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종래의 地域事業主義에 의한 電氣事業의 亂立은 統制와 調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朝鮮總督府는 1931년 12월 朝鮮電氣事業調査會의 協의를 받아 發電 및 送電網計劃과 電力事業의 企業形態 그리고 配電統制로 구분되는 電力統制計劃을 수립시행

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發電 및 送電計劃

電力施設의 佈置를 목적한 것으로서 1932년 4월에 公告하여 시행하였는데 중요한 發電水力 전부를 개발목표로 하는 「豫定發電計劃 및 送電計劃」과 그중 1940년까지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는 「發電計劃 및 送電計劃」으로 구분하였다.

### 2. 企業形態 및 配電系統統

發電은 원칙적으로 民營에 의하여 개발 운영시키고 送電은 송전망의 유기적 운영을 위해 民營으로 하고 配電은 전국을 수개의 합리적 配電區域으로 나누어 區域內의 기존 群小事業을 統제하여 民營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32년 2월 17일 制令 제 1호로 朝鮮電氣事業令을 제정하고 1933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하였다.

이 發電事業計劃에 따라 1933년 5월 長津江水力電氣會社를 비롯하여 朝鮮水力電氣, 朝鮮鳴綠江水力發電, 富寧水力電氣, 江界水力電氣, 漢江水力電氣, 南鮮水力電氣, 北鮮水力電氣등의 水力電氣會社와 火力의 朝鮮電力株式會社가 설립되어 電源開發을 담당 많은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電氣事業은 종래의 1地域 1事業體制를 지양하고 전국을 4개지역(당초는 1道1社主義)으로 나누어 群小業체가 統제합되어 京城電氣株式會社(中部地方)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南部地方),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西部地方), 北鮮合同電氣株式會社(北部地方)등 4개 配電會社가 설립되었다.

이와같은 韓國의 電力事業은 그뒤 다시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을 통하여 日帝는 高度의 國防體制를 갖추기 위해서 1942년 12월 31일 「電力國家管理實施要綱」을 결정하고 1943년 4월 30일 制令 제 5호로 「朝鮮電力管理令」을 공포시행하는등 제 2차統제를 실시하였으나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풍부한 電力을 공급할 수 있었다.

\*